

이번엔 日 국적... 사소 3년 만에 US여자오픈 정상



제79회 US여자오픈골프 선수권을 제패한 사소유카가 정상에 오른 뒤 우승컵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AFP-연합뉴스

2021년 대회선 어머니 나라 필리핀 국적으로 우승 올해는 아버지 나라 日에 첫 US오픈 우승컵 선물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국적을 바꾼 사소유카가 여자골프의 최고봉인 제79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총상금 1200만 달러) 정상에 우뚝섰다.

사소는 3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의 랭커스터 컨트리클럽(파70·6830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더블보기 1개, 보기 1개로 2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4언더파 276타를 기록한 사소는 29인 역시 일본의 시부노 하나코를 3타 차로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했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US여자오픈 트로피를 다시 들어올린 사소는 우승 상금 240만 달러(약 33억2000만 원)를 받았다. 우승 상금 240만 달러는 역대 여자골프 대회 사상 최대 규모다.

사소는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승째를 거뒀다. 사소 개인적으로는 US여

자오픈에서 두 번째 우승이지만 일본인 최초의 US여자오픈 골프대회 우승자가 됐다.

일본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소는 2021년 6월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할 때는 필리핀 국적이었고, 그해 11월부터 일본 국적으로 변경해 대회에 나오기 때문이다. 2021년 우승컵은 어머니의 나라인 필리핀에, 이번 우승컵은 아버지의 나라 일본에 큰 선물을 안긴 셈이다.

세계 랭킹 30위 사소는 이번 우승으로 다음달 열린 파리올림픽 출전 가능성도 한층 키웠다. 현재 일본 선수로는 하타오카 나사가 18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있고 야마시타 미유가 23위, 후루에 아야카가 25위다. 6월 24일 세계 랭킹 기준 15위 미만은 한 나라에서 최대 4명이 올레 파리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

사소는 필리핀 국가대표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인과 단체전 2관왕에 올랐고, 2021년 도쿄 올림픽에도 필리핀 대표로 나가 공동 9위를 기록했다.

사소의 메이저 대회 우승은 1977년 LPGA 챔피언십 허구치 히사코, 2019년 브리티시 여자오픈 시부노에 이어 일본 선수로는 세 번째다. 남자 선수로는 마쓰야마 히데키가 2021년 마스터스에서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사소는 3라운드까지 2언더파로 공동 선두에 3타 뒤진 5위에서 4라운드를 출발했다. 2번 홀(파4)에서 약 6m 버디 퍼트를 넣고 추격에 나선 사소는 6번 홀(파3)에서 퍼트만 네 번 하면서 2타를 잃어 선두와 격차가 3타로 벌어졌다.

그러나 12, 13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았고 이때 선두를 달리던 이민지(호주)가 9, 10번 홀 연속 보기를 적어낸 바람에 사소가 1타 차 선두로 올라섰다.

사소는 15번 홀(파4) 버디로 2위와 간격을 2타로 벌렸고, 원운을 유도하기 위해 2320야드로 세팅된 16번 홀(파4)에서는 3번 우드로 티샷해 공을 바로 그린에 보내며 또 버디를 뉘아 승기를 잡았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효주와 신인 임진희가 나란히 4오버파 284타로 공동 12위를 기록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김아림과 이미향은 5오버파 285타로 공동 16위다.

박병현기자 bhpark@skyedaily.com

4년 만의 복귀 황선홍... 강등권 추락 '대전' 사령탑 됐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며 '추락한 황새' 황선홍 전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강등권으로 몰린 프로축구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 사령탑에 올랐다.

대전 구단은 황 감독을 제15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황 감독은 2020년 9월 성적 부진으로 대전 사령탑에서 물러난 지 4년 만에 다시 대전으로 복귀하게 됐다.

대전 구단은 "11위를 기록 중인 위기 상황을 타파하며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시점에 국내의 리그와 국가대표팀에서 선수 지도자로 풍부한 경력을 가진 황 감독이 선수단을 통솔하는 리더십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

복합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선수 시절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 스트라이커였던 황 감독은 2008년 부산 아이파크에서 지도자로 첫발을 내디뎠다. 2011년



부터는 선수 시절 몸담았던 포항 스틸러스를 이끌며 2013년에는 정규리그와 대한축구협회컵(FA컵) 2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5년 동안 포항에 리그 99승, 3개의 트로피(정규리그 1회, FA컵 2회)를 선사하며 K리그를 대표하는 명장으로 떠올랐다. 2016년에는 FC서울 감독으로 다시 한번 K리그1 우승을 지휘했고, 2013년에 이어 그해에도 K리그1 감독상 수상자가 됐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음바페 결국 R 마드리드행... 5년 3300억 '대박'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25)가 예상대로 2023~24시즌 유럽 클럽축구 챔피언인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유니폼을 입는다.

영국 BBC는 음바페가 자유 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을 떠나 라리가의 '명가'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3일(한국시간)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음바페는 2월 레알 마드리드 이적에 구두로 동의했으며 2029년까지 5년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매 시즌 1500만 유로(약 224억 원)를 받고 계약금으로만 1억5000만 유로를 챙긴다. 이번 계약으로 음바페가 벌어들이는 돈은 2억 2500만 유로에 달한다. 음바페는 여기에 더해 레알 마드리드가 그의 초상권을 활용해 얻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가져간다. PSG는 계약기간 종료 뒤에 음바페의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생제르맹(PSG)의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가 2023~24시즌 유럽 클럽축구 챔피언인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는다고 영국 BBC가 3일(한국시간) 보도했다.

AFP-연합뉴스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적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음바페와 PSG의 계약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스페인 라리가 이적 기간이 시작되는 7월 1일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이뤄진다.

음바페는 PSG와 프랑스 대표팀을 상징하는 스타다. 임대로 된 2017~18시즌부터 7시즌 동안 PSG의 주포 역할을 하며 308경기 256골을 기록했다. 2023~24시즌에도 29경기에 출전해 27골을 터뜨려 득점 2위 알렉상드로 라카제트(리옹·19골)를 따돌리며 득점왕을 차지했다.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20년 만의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승에 앞장섰다. 그가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향할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졌고 결국 현실이 됐다.

박병현기자 bhpark@skyedaily.com

Volvik
CONDO R
TOUR PERFORMANCE PREMIUM URETHANE BALL